

국립돌리소

군산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군산시 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별 주민의 건강수준 등을 파악해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등 18개 영역 207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건강조사는 '실천하는 건강조사, 실현되는 지역건강'이라는 표어로, 조사대상 가구에는 8월중 지역사회 건강조사 가구 선정 통지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460-321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팔봉동 부녀회 삼계탕 나눔 봉사

익산시 팔봉동새마을부녀회(회장 송정운)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성희)는 더위에 힘입어 하는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9일 팔봉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100여분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원 등 25명은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해 어르신께 대접할 100인분의 삼계탕을 준비했다. 또한 마을 통장, 주민자치위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원거지 어르신들 위해 차량을 운행했다.

송정운 새마을부녀회 연합회장은 "팔봉을 앞둔 무더운 날씨에 동네 어르신들이 삼계탕으로 기력을 되찾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팔봉동 부녀회는 매년 한웃수집, 미역, 다사미, 김 등을 관 수익금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에게 밀비찬 봉사활동을 분가별로 실시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상수도 검침원 친절교육

익산시 상수도과는 9일 오전 신홍정수장 홍보관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검침원들의 직무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상수도검침 업무를 지난 2011년 1월부터 민간으로 위탁한 익산시는 매월 50명의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및 친절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정확한 검침과 신속한 고지서 교부, 체납요금 납부촉진 방법, 수용가 방문 시 민원응대 요령 등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검침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교육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복지청소년과에서 긴급지원제도 관련 교육을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주 상수도과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맡은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는 검침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신뢰받는 상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대면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큰 만큼 친절함 자체로 검침업무에 임해 달라"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절도범 긴급체포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최근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구내 '모 갤러리' 금은방에서 귀금속 34점, 시가 312만4,500원 상당을 절취한 절도범(절도범 등 전과 13범)을 긴급체포 했다.

경장 손경수 순경 김기환는 평소 범죄 취약개소인 금은방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방범단란을 하던 중 귀금속을 도난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내 금은방 여관 등에 대해 지속적인 탐문수사를 통해 끈질기게 수사 하여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두 경관은 '범죄예방을 위한 꾸준한 첩보수집, 탐문수사와 함께 단순 무임승차로만 처리할 수 있었던 112신고를 쉽게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찰하여 전과 13범인 금은방 절도범을 긴급체포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의 여성은 안전한가? - ③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반복되는 성 범죄에 맞설 강력 대응 필요

성폭행과 관련한 독일의 한 공익광고가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남성 성기를 뱀의 이미지로 형상화 한 뒤 피해 여성이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일평생 그녀의 몸을 기어 다닌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에는 여성의 영혼까지 죽이는 게 성폭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건수는 대략 2만 5000건으로 하루 평균 68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혹산도 학부형 교사 윤간, 제 2의 밀양사건으로 불리는 선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 가운데 성범죄를 다룬 뉴스가 상당수다. 이에 본지는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산의 성범죄 현주소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혹산도 교사 성폭행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책임 떠넘기기와 일성사만 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정책이나 대책 마련은 사라지곤 하는 게 현실이다. 성폭력범죄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나 이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보다 나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아서는 안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위기안전망 구축 이루어져야

글 쓰는 순서

- ①성범죄 군산의 현주소
- ②성범죄 예방대책 및 안전시설 재점검 필요
- ③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위기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性)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전문가는 "일부의 여성의 경우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도 인지(認識)하지

도 전에 가부장적 유물의 잔재로서의 성문화를 답습하며 상업적인 성문화 속에서 성폭력·성매매의 피해자 뿐 만 아니라 가해 행위 당사자로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확대, 청소년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성범죄를 목인하거나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송방방이 처벌보다 그치는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온정주의와 사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성범죄를 키워왔다는 지적 속에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부모 이모(35) 씨는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정부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안팎은 물론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강화와 함께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성폭력 상담사는 "성범죄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모두가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새만금 홀대 남북 2축도로 예산 '초비상'

요구된 1200억원 중 국토부 반영액 57억원 마저 삭감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 간선도로인 남북축 도로 건설관련 예산이 정부 각 부처로부터 잇따라 홀대를 받으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새만금 개발의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남북축 도로로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관광단지과 군산시 새만금 산업용지 구간 총 연장 26.7km를 6~8차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919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 도로는 현재 22%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 동산축 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용지의 중앙에서 만나 십자형 입체도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향후 새만금의 대표적인 인프라 역할과 함께 투자유인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공사가 활발한 동산축 도로 못지않게 남북2축 도로에 대한 정부 소관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착공 첫해인 올해 당초 2017년 국가예산으로 요구된 1200억원 가운데 국토부 반영액은 고작 57억원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서는 설계비 명목으로 반영된 57억원 마저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만금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동산축과 남북2축 도로를 동시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며 남북축 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자 군산지역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새만금 사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불만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남북축도로는 과거에 대통령도 조기완공을 약속할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인데, 정부 소관부처나 기재부에서 줄줄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새만금사업이 또다

시 홀대받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군산시도 적극적인 대응 행보에 나섰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방문에 남북축 도로 등 새만금 인프라시설의 조기구축을 위한 2017년도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문 시장의 이날 기재부 방문은 정쟁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3차 심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 시장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 촉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남북축 도로의 2017년 국가예산으로 120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군산시 관계서는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축 도로망의 차질없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폭설연도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정차된 공조 등 동반행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해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립도서관 '여름 독서 교실' 성료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된 2016년 여름 독서 교실' 강좌가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독서교실은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통한 여가시간의 활용 및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립·늘푸른·설립도서관에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운영했다.

독서교실에서는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방법, 도서 분류기호 이해하기, 연극·북아트 체험활동, 손 편지 쓰기 등 다채롭게 진행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초등학생 68명이 수료했으며,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들을 선발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 3명과 군산시장상 5명을 시상했다.

김홍식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독서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행복을 찾고 도서관이 즐기며 배우는 생활 속 행복의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여성단체협의회, '티 소물리에' 수강생 모집

익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영미)는 부부가 함께 차를 통해 소통하고, 자격증 취득으로 창업의 기회를 제공 하는 '차로 소통, 티 소물리에 과정'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티 소물리에 과정은 익산시 지방보조사업으로 총 8주 과정으로 8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오후1시30분~4시30분까지)에 익산시 여성회관에서 실시된다.

테이스팅 도구 사용법을 비롯해 제조과정에 따른 녹차 분류, 생산자에 따른 향차 분류, 다양한 차차 알이보기, 허브차의 활용과 효능 알아보기

등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티 소물리에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티 소물리에 13(LABEL3-티소물리에) 자격3급, 한국사립법안협회 주관 직업능력개발 자격인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모집정원은 20명으로 익산시 거주 여성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는 우선 선발하며 8월 19일까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에 전화(☎52-5330)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증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상반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2,154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참여자 1,292명 대비 68.7%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참여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등은 전년 동기 참여자 739명 대비 3.8% 증가한 764명이다. 또 청년층(만18~34세), 중장년층(만35~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은 전년 동기 참여자 559명 대비 150% 증가한 1,390명이다.

특히 청년층 참여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고교·대학 등 졸업을 앞둔 재학생 등을 참여대상자로 확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상담,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에 이르는 개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최장 12개월 동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하반기 대량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종 회사 및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업종에서 고용조정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참여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군산고용복지센터(063-450-0641~5)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임피향교, 여름방학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군산 임피향교는 여름방학 기간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일제 강점기 역사를 통해 군산을 재조명하는 시간과 청년세대의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레디메이드 인생에서 탈출', 또한 군산 출신 대표 문인이자 소설 탁류의 작가인 채만식 선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임피향교와 노성당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선비들의 지혜와 삶을 융·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종신 임피면장은 "여름방학 기간



중 개최되는 뜻 깊은 행사인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전북서부보훈청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

"전북서부보훈청(지청장 이우실)은 정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 그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 등을 전수받지 못한 분의 후손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후손 찾기를 위한 캠페인은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명예, 선양 그리고 보존 수혜를 통한 후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후손 확인을 위해서는 족보·제적증(가족관계증명서), 당안·호구부(중국 거주 시), 출생·사망증명서(외국 거주 시) 등 독립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조가 계시거나 현재까지 훈장, 표창을 전수받지 못한 분의 후손은 국가보훈처지 공훈전자사료관 (http://e-gonghun.mva.go.kr)이나 광복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익산=장양원기자